베네수엘라 7.5 연쇄강진…“최소 32명 사망·700명 부상”

수도 카라카스 주택·건물 붕괴…공휴일 덮친 강진에 대피 소동
USGS “1만-10만명 사망 가능성”…정부, 국가비상사태 선포

24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사람을 옮기고 있다. /AFP=연합뉴스

베네수엘라에서 24일(현지시간) 연이어 발생한 규모 7.2와 7.5 강진으로 인해 현재까지 최소 32명이 사망하고 70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이날 국영 베네수엘라TV(VTV)를 통한 대국민 연설에서 “현재까지 3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으며, 공립 병원 및 민간 의료 센터 응급실에 입원한 피해자는 7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라과이라주(州)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구조대가 붕괴한 건물을 수색함에 따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수십 채의 건물이 붕괴됐으며, 우리는 신이 구조할 수 있도록 허락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된 작업에 매진 중”이라며 “라과이라주는 진정한 비극에 직면했으며, 재난지역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4분께 베네수엘라 북부의 카리브해 연안 마을 모론 서부 지역에서 규모 7.2 지진이 발생했다.

이로부터 불과 39초 후 첫 번째 진앙에서 남서쪽으로 약 45㎞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7.5 지진이 이어졌다.

USGS는 지진 발생 깊이를 첫 번째 지진 21.9㎞, 두 번째 지진 10㎞로 파악했다.

진앙지는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약 160㎞ 떨어져 있다.

이번 강진으로 카라카스 시내 건물이 크게 흔들리고 주민들이 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에 기여한 1821년의 군사적 승리를 기념하는 베네수엘라 공휴일을 맞아 주민 다수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집에 머물고 있었다.

한 목격자는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생겼고, 건물 입구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고 전했다.

아파트 밖으로 대피한 카라카스 주민 로베르토 가마스는 AP통신에 “건물이 정말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다. 비현실적이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힘이 강했다”며 “걷고 있었는데 몸이 이리저리 내던져지고 집안 모든 물건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카라카스 서부에 사는 아스트리드 라미레스는 “지진이 시작되자마자 사람들 비명이 들리기 시작했다”며 “모두 계단으로 뛰어 내려갔다”고 지진 발생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카라카스 거리에는 소방차들이 출동해 있고, 일부 건물들은 외벽이 심하게 손상됐다. 또한 지진 직후 정전이 되고 인터넷이 단절된 상황도 알려졌다.

영상에는 밤이 깊어져 가는 와중에 구조대가 무너진 건물 잔해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 공포에 질린 주민들이 가족을 위한 구조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도 담겼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아직 공식적인 인명 피해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USGS는 “사망자 수가 최소 1만명, 최대 10만명에 달할 수 있다”며 “막대한 인명 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USGS는 사망자가 1만-10만명일 확률을 40%, 1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을 14%로 각각 예측했다. 또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베네수엘라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인접국인 푸에르토리코를 비롯해 미국령 및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는 한때 쓰나미 위협 경보가 발령됐다. 미국 쓰나미경보시스템은 아루바, 퀴라소, 보네르 등 베네수엘라 해안 인근 섬 지역에도 위험한 쓰나미 파도가 덮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호르무즈 벗어나려는 유조선들, 따개비에 발목 잡혔다

전문 청소 거쳐야 출항 가능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장기간 발이 묶였던 유조선들이 이번에는 선체에 달라붙은 따개비 때문에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이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바닷길이 다시 열리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악재가 불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운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몇 달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페르시아만에 정박한 대형 유조선들은 선체에 따개비·홍합·해조류 등 각종 해양 생물이 달라붙은 상태다.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연료 효율이 급격히 저하되며, 심할 경우 프로펠러가 완전히 고장 나서 선박 자체를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

정상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전문 잠수 인력을 투입해 선박 세척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초대형급 유조선의 경우 선박 길이가 305m(1천피트), 폭은 46m(150피트) 이상으로, 청소해야 할 바닥 면적은 선박 한 척당 약 1만4천㎡(15만제곱피트)에 달한다.

잠수부 5-6명으로 구성된 작업팀은 손 긁개와 고압 세척기를 사용해 부착물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데, 작업 시간은 한 척당 4-5시간이 소요된다.

더구나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한 유조선은 600여척에 달해, 모든 선박의 세척을 완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따개비 정리’ 작업에 병목이 심하게 걸리면서 유조선들의 출항이 줄줄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선박 하부 청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요금도 선박당 수만달러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CNN은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 시장은 전등 스위치를 켜듯 단번에 정상화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홍콩서 독립서점 운영자 선동 혐의 체포

홍콩 경찰이 선동 등의 혐의로 민주 진영 전직 구의원을 포함한 독립서점 운영자 2명을 체포했다.

25일 AP통신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홍콩 경무처(경찰)·국가안전처는 전날 삼수이포 지역에 있는 헌터서점을 수색하고 선동 등의 혐의로 서점 운영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인사들의 신원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현지 매체들은 헌터 서점 주인인 전직 구의원 레티시아 웡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헌터 서점은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의 전기를 판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유럽 기온 상승이 다른 대륙보다 2배 빠른 이유는

태양에너지 반사 해빙·눈 감소 등 영향

해빙(海氷, 바다 얼음)과 눈 감소 등 지역적 요인으로 인해 유럽이 다른 대륙보다 2배 빠른 기온 상승 현상을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연합(EU) 기후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에 따르면 유럽은 1990년대 중반부터 10여년마다 기온이 0.56도씩 상승해 전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두 배가량 빠른 기온 상승 속도를 보였다.

NYT는 지구 전체적으로 산업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등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럽은 지역적 요인으로 인해 기온 상승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전했다.

NYT는 유럽 최북부 지역에서 따뜻한 대기로 인해 북극의 광대한 지역을 덮었던 해빙이 녹고 있는 점을 지역적 요인의 일례로 들었다. 바다 얼음이 녹으면서 더 많이 노출된 해양 표면이 태양에너지를 흡수해 기온상승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는 눈이 감소한 것도 기온 상승의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유럽 지역에서 눈으로 덮인 땅 면적은 평균보다 3분의1 정도 적었다. 열을 흡수할 수 있는 노출된 토양이 확대되면서 스칸디나비아와 러시아의 유럽 부분 등의 기온 상승을 부채질했다.

NYT는 이산화탄소 배출 등 오염 통제도 유럽 기온 상승 속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짚었다. 오염 물질 통제가 대기 자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에어로졸이라고 불리는 공기 중 입자를 감소시켜 기온을 높였다는 것이다. 에어로졸은 태양에 의해 방출되는 복사에너지를 우주로 반사한다.

기상 과학자들은 육상과 해상의 이런 요인들이 대서양에서 유럽으로 불어오는 차가운 해양 공기를 유지하는 제트기류에 변화를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영국 브리스톨대의 기상 과학자인 리지 켄든은 “기후 변화로 인해 (올해) 기온 상승과 기온 기록 경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